



◇ 불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불자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불심으로 신체·사회 장애 극복

점자경전 발간 맹인포교에 앞장... 운전면허 취득·문학상 수상

한명우 기자

일반인들의 단순한 동정과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사회적 제약을 딛고 불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불자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해광맹인복지회 회원들, 불심을 통해 '앞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이 그 좋은 예다.'

불법이 좋아 모인 회원 1백여명은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법회를 갖는 것은 물론 점자 불교경전을 발간해 맹

인들을 위한 포교에도 열심이다.

"지금까지는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베풀고 싶다"는 이찬 문화부장은 해광맹인복지회 회원들은 정상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한다.

4천만 인구중 1백만, 전체인구의 2.5% 한국장애인협회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의 장애인 숫자다.

그러나 이들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며 사회에 적응하기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세살때 심한 열병을 앓고난 후 청각

을 잃은 민은준씨는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었을 정도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때 친구의 권유로 불경을 읽게 되면서부터 마음의 귀를 열게 된 민씨는 정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장애인을 고려한 사회적 분위기마저 성숙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차례 도전 끝에 지난 8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부처님과 함께 운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더군요" 정상인들에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

니라고 여겨지는 이런 일조차도 장애인들에겐 눈물나는 노력과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발달을 위한 여러방면의 교육과 특히 자립적 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현실이다.

이민경씨는 시각장애라는 고통을 딛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교육과 직업알선 등의 활동을 하며 자립적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흔치 않은 직업여성이다.

고2때 맹아학교 교사의 권유로 조계사 원심회를 다녀온 후 덕신스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한 이민경씨는 "부처님을 만나고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게 되었어요. 부처님 말씀따라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요"라며 부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한다.

"문학속에 나타난 장애인"이란 평론으로 지난달 3일 출제 장애인 문인협회 신인상을 수상한 이민준씨.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역할을 하는 휠체어와 불교뿐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불교는 그가 글을 쓰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글쓰는 작업은 어쩌면 불교의 깊은 사상을 담을 수 밖에 없는 일이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인연이지요. 더 좋은 글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비록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말하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여러가

"마음의 눈귀로 세상의 꿈 실현했지요"

지 사회적 제약과 신체적 장애속에서도 이들은 깊은 불심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며 열심히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신체적 장애는 이들의 심심만큼 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카드·달력 올해도 인기

작년보다 2배 늘어... 경구담겨 문서포교도

불기 2538년을 한달남짓 남겨놓고 시종 불교서점이나 불교용품점에는 불교적 정서를 담은 다양한 카드와 달력이 출시돼 불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말연시때면 가까운 친지와 은사님께 보낼 카드를 고르느라 고민하던 불자들에게 올해는 카드를 고를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교카드는 몇해전 부처님 오신날 봉축카드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해 현재 10여개 업체 1백여종의 카드가 시판되고 있다. 관음손, 글도량, 선재마을, 견지불교사 등 불교용품전문업체들은 각기 자체 제작한 카드를 고유상표로 선보이고 있다.

전통한자를 이용한 수공예 제품을 비롯해 연꽃, 불보살, 스님, 동자, 탑등의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놓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여기에 부처님 말씀, 경구등을 옮겨 놓은 것도 있어 불교 문서포교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결혼인사, 봉축엽서등도 이미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카드를 찾는 이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비롯 젊은층이 주고객. 가격은 장당 3백50원에서 3천원선 까지이며 1백장이상 구매시에는 할인관대도 한다.

카드와 함께 현대적 실용성과 작품성을 갖춘 95년도 달력도 나왔다.

작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50여종의 신년달력 가운데



◇ 다양한 불교카드와 달력이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해인사의 사계달력, 성륜스님의 불고기 그림달력, 이철수씨의 관화달력등이 가장 인기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현대적 디자인과 메모공간을 마련해 놓는 실용성까지 가미한 이들 달력은 카드와 함께 신년선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가격도 1천5백원에서 7천원까지 다양하며 단체주문시에는 할인혜택도 받을수 있다.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교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카드와 달력을 주고 받으며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불교신행의 한 방법이 될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같은 카드와 달력의 제작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김승 10·11월 중앙승가대서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제 14회 지도자 강습회를 중앙승가대에서 12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아름다운 연꽃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법현스님, 해인스님을 비롯 12명의 전문강사가 참여해 공동체놀이, 민속무용, 촛불발명경진, 아동극의 실행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02)935-4967

생활·전통 차례반 개강 불교전통문화원

불교전통문화원(원장 선혜스님)은 생활·전통차례와 사군자반반을 12월 1일 개강한다.

생활·전통차례는 1년, 사군자기초반은 4개월과정이며 수강료는 월 4만원이다. (02)-732-2068

만 화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수 없어도

이 함 원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운명의 책'

한 권의 책이 한 사람과 한 사회와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청량제처럼 목만 축이는 그런 책에서 이를 상하게 하는 달콤한 사람 같은 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책이 우리 길을 스치고 지나간다.

입에 쓴 약처럼 운명의 책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이다. 삼성에서 기획된 이 세계사상 전집은 문자 그대로 달의 무리에 섞여 있는 한 마리 학을 가려 엮은 책이다.

李御奉 (전 문화부장관)

삼성세계사상 GREAT BOOKS OF THE WORLD

1. 한국의 유학사상 2. 논어/중용 사서집주 3. 맹자/대학 사서집주 4. 노자/장자
5. 사기열전 6.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7. 정치학/시할 8.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9. 군주론/리바이어던 10. 팔서 11. 한국의 불교사상 12. 법법사상/성실 외 13. 통치론/자유론 14. 순수이성론
15. 역사철학강의 16. 종의 기원 17. 진화론 18. 정신분석학론 19. 현대의 신학/이슈앤데바
20. 시간과 자유의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1. 한국의 민족 종교사상 22. 사실론/사실론 23. 사회경제사
24.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25. 역사의 연구 26. 역사의 연구 27. 과학과 근대세계/우연과 필연
28. 간디 자서전/시인의 불복 29. 존재와 무 30. 존재와 무 31. 한국의 실학사상 32. 명심보감/서희의 불교외
33. 1천원짜리 인간/부담 34. 숲을 읽다 35. 황금가지 36. 황금가지 1



36권
 제재: 대법 국문, 각권 본문 450~600여면 · 작가 화보
 특수 보관용 서적지

삼성출판사
 (02)763-8331~40

남편한테서 읽으십시오